

〈서평〉

제주 방언의 실상을 살필 수 있는 지침서

- 강영봉의 『제주의 언어 1·2』(2001, 도서출판 제주문화) -

고 재 환*

이 두 권의 책은 저자가 제주방언인 제주어를 전공하는 교수로서 평소 관심을 갖고 정리해 온 제주어 어휘들의 일부를 선별해서 언론 매체에 연재했던 컬럼들을 한데 모아 엮어낸 것이다. 이미 국어학계에 정평이 나 있는 그대로 한국의 방언 중에서 제주방언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특성은 주목을 끈 지 오래다. 그것은 어느 지방의 방언보다도 음운면·형태면·어휘면에서 특이하고 다양한 어형들이 그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. 그렇듯 『제주의 언어 1·2』는 바로 그 실상을 실감 있게 살필 수 있도록 꾸며진 해설서이다.

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이들 두 권 중의 첫 번째 『제주의 언어 1』은 저자의 말대로 월간 『관광제주』 창간호부터 40여 회에 걸쳐 연재했던 것인데, 1994년 단행본으로 묶어낸 것을 2001년 증보판으로 보충 자료를 추가시킨 것이다. 그 내용과 체재의 특색은 감각인상과 입체감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어휘들을 화용론에 입각해서 해설해 놓고 있는데, '맛깔의 어휘·색깔의 어휘·성깔의 어휘·태깔의 어휘·행동의 어휘' 등 5가지로 구분돼 있다. 또 부록에 '친족·의관·연장·관모·농경·음식·해녀·무속·말·소·돼지·물고기·조개·갑각·해초·식물·곡물'들의 제주어 명칭들과 속담 250여 편, 금기어 550여 편을 실고 있어 구비전승의 민속어 자료집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. 특히 이들 자료들의 표기가 제주어표기법에 의해 기록해 놓고 있어 제주어 표기의 귀감이 된다.

* 제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

두 번째 책인 『제주의 언어 2』는 ‘제민일보’ 창간 당시 ‘제주말 교실’ 칼럼 420여 회의 연재물을 모아 1997년에 엮어낸 것이다. 이 책은 주로 제주어의 어휘들 가운데 동사류와 형용사류를, 가나다...순으로 333개의 어휘를 뜻 풀이나 단순한 설명에 머물지 않고, 『제주의 언어 1』에서와 같이 화용론을 중심으로 실제 쓰이고 있는 용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. 그런데 아쉬운 것은 저자가 ‘머리말’에서 밝히고는 있지만, 신문지상에 ‘~허다’로 된 어휘들은 전부 ‘~허다’로 게재됐던 그대로를 따르기보다, 단행본으로 만들 때는 ‘~ㅎ다’로 고쳐 쓰거나 ‘~ㅎ(히)’로 병행해서 표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. 왜냐하면 게재된 ‘궤주다·돌아지다...’ 등의 ‘궤·돌’과 같이 ‘·’자를 내세움으로써, 훈민정음 28자 중 없어진 ‘·’음이 제주에는 현재도 두루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 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.

아무튼 이들 두 권의 책은 자칫 학문적인 내용으로 기울 수 있는 데도 재미있게 읽어 가면서 제주어의 이채로움을 감지할 수 있도록 쉽게 씌어져 있어, 독자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. 우리 나라의 국어인 한국어가 한국인의 뿌리를 확인해 주고 그 유대감을 고착시켜 주는 거덜못의 구실을 하는 것처럼, 제주어는 제주도 기층문화의 뿌리이자 동맥으로서 제주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화유산이다. 날로 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실현과 맞물려 보존돼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주어의 올바른 전수이다. 그래서 이 『제주의 언어 1·2』는 제 고장의 토박이말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제주인들은 물론이고 제주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까이 두고 읽어보아야 할 값진 책이다.